

버드나무

The Willows

앨저넌 블랙우드 (Algernon Blackwood) (1869-1951)

190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앨저넌 블랙우드 (Algernon Blackwood), "The Willows" (The Listener and Other Stories 1907)

저자

앨저넌 블랙우드 (Algernon Blackwood) (1869-1951)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143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앨저넌 블랙우드

1907년

목차

I.

II.

III.

IV.

V.

1.

빈을 떠나 부다페스트에 도착하기 훨씬 전, 도나우강은 유독 고독하고 황량한 땅으로 들어선다. 강물은 주요 수로를 따르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땅은 수 마일이나 이어지는 늪지가 된다. 그 위에는 낮은 버드나무 덩불들이 바다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큰 지도 위에서는 이 황폐한 지역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다. 강둑에서 멀어질수록 색은 옅어진다. 지도 위에는 거친 글씨로 ‘Sümpfe’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는 늪을 뜻한다.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면, 이 광활한 모래톱과 자갈밭, 그리고 버드나무가 우거진 섬들은 거의 물속에 잠긴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덩불

들이 자유롭게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소리를 낸다. 흔들리는 잎사귀들은 햇살에 은빛으로 빛나며, 눈이 어지러울 만큼 아름다운 평원을 이룬다.

이 버드나무들은 결코 나무다운 위용을 갖추지 못한다. 단단한 줄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겸손한 덩굴로 남는다. 둥근 윗부분과 부드러운 윤곽선을 지닌 채, 가느다란 줄기 위에서 바람의 미세한 압력에도 쉽게 흔들린다. 풀처럼 유연한 그들은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인지 전체 평원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바람은 전체 표면을 가로지르며 파도를 일으킨다. 물결이 아닌, 잎사귀의 파도다. 바다처럼 푸른 물결이 일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지들이 방향을 틀어 들어 올려지면, 햇빛을 받는 잎의 뒷면이 은빛 흰색으로 빛난다.

도나우강은 거친 강둑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여기서는 마음대로 유유히 흐른다. 강물은 섬들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수로들 사이를 누비며, 넓은 대로처럼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린다. 소용돌이를 만들고,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일으키며, 거품 나는 급류를 형성한다. 모래 강둑을 찢어내고, 강변의 덩어리와 버드나무 무리들을 쓸어간다. 그리고 매일 크기와 모양이 바뀌는 수많은 새로운 섬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섬들은 최선의 경우에도 영속적인 삶을 갖지 못하는데, 홍수기가 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 강이 지닌 매혹적인 면모는, 엄밀히 말해 프레스부르크를 지나 조금 뒤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캐나다제 카누를 몰고 있었다. 선상에

는 집시 텐트와 프라이팬이 실려 있었다. 7월 중순, 불어난 물줄기 위에 올라탄 우리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

그날 아침, 해가 뜨기 전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다. 우리는 아직 잠들어 있던 비엔나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두 시간쯤 뒤, 우리는 비엔나를 지평선 너머 푸른 비엔나발트 산맥 앞에 피어오르는 연무 한 점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우리는 피셔아멘트 아래, 바람에 나뭇가지가 요란히 울리는 자작나무 숲 아래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거친 물살을 타고 내달렸다. 오르트, 하인부르크, 페트로넬(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대 로마 도시 카르눈툼)을 지나쳤다.

그리고 카르파티아산맥의 지맥 위에 우뚝 선, 엄숙하게 내려다보는 텔젠의 절벽 아래로 들어섰다. 여기서 마르슈강이 왼쪽에서 조용히 합류했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국경을 넘었다.

우리는 시속 12킬로미터로 내달렸다. 순식간에 우리는 헝가리 깊숙이 들어섰다. 진흙탕 같은 강물은 홍수의 확실한 징표였다. 우리는 자갈밭에 여러 번 걸려 멈추었고, 프레스부르크(헝가리어로 포즈니)의 탑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번의 거품 토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코르크 마개처럼 뒤틀렸다.

그때 카누는 혈기 넘치는 말처럼 도약했다. 회색 성벽 아래로 최고 속력을 내며 날아갔다. 침수된 플리겐데 브뤼케(Fliegende Brücke) 페리의 사슬을 무사히 통과했다. 왼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황색

거품 위를 질주하며 저 너머의 섬들과 모래톱, 습지로 이루어진 황야로 뛰어들었다. 바로 버드나무들의 땅으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 도시의 풍경이 연이어 비추다, 예고 없이 호수와 숲의 광경으로 장면이 바뀌는 듯했다. 우리는 날개 달린 자처럼 황량한 땅으로 들어섰다. 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배도, 어부들의 오두막도, 붉은 지붕도, 더 이상 인간의 거주지나 문명의 흔적이라곤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인류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고립감, 그리고 이 버드나무들과 바람, 그리고 물로 이루어진 기이한 세계가 지닌 매혹적인 기운이 순식간에 우리 둘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으며,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종류의 여권을 지녀야 마땅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용감하게도(아니, 다소 무모하게도) 신비와 마법이 가득한 작은 왕국에 침입했다고 말하곤 했다. 그곳은 다른 이들을 위한, 오직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상상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침입자에 대한 묵시적인 경고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후 시간이 아직 이른 편이었으나, 거세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에 우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하룻밤 묵을 적절한 캠핑터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섬들의 지형이 너무 복잡해 상륙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용돌이치는 강물은 우리를 강가로 밀어붙였다가 다시 휩쓸어 내던졌다. 우리는 카누를 멈추려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렸지만, 날카로운 가지는 우

리 손을 찢어놓았다. 우리는 결국 강 모래톱을 몇 야드나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끝에, 드디어 거센 횡풍에 밀려 한쪽 강둑의 물살이 잔잔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분수탕 같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카누의 앞부분을 모래밭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바람이 막힌 곳, 뜨겁고 노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위에는 구름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있었고, 쏘아붙일 듯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쬘고 있었다. 그리고 사방에서부터 밀려드는 무수히 많은 버드나무들이, 물보라에 반짝이며 춤추고 외치는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작은 손뼉을 치며 마치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축하라도 하듯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정말 강이군.” 나는 말했다. 흑림에서 시작된 강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난 6월 초 상류의 얇은 물가에서 그가 종종 허벅지까지 물을 헤치고 카누를 밀며 나아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 장난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는 강바닥에 쌓인 모래 위로 카누를 조금 더 밀어 넣으며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나른한 낮잠을 자려 몸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의 곁에 누웠다. 물과 바람, 모래,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어우러진 자연의 목욕탕 속에서 나는 행복하고 평온했다.

우리가 지나온 긴 여정과, 이제 흑해까지 이어질 광활한 앞길을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나의 친구, 스웨덴인이라는 즐겁고 매력적인 여행 동반자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비슷한 여정을 여러 번 함께했다. 하지만 도나우강은 내가 아는 다른 어떤 강보다도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도나우강은 도나우에싱겐의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물줄기가 보글 보글 솟아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 그것은 버려진 습지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대한 강으로서의 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 강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꼈다. 처음에는 나른했지만, 이내 자신의 깊은 영혼을 자각하며 격렬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유체적 존재처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나라를 가로질러 굴러다녔다.

그 강은 우리의 작은 배를 거대한 어깨에 싣고 이동했다. 때로는 우리를 거칠게 굴리기도 했지만, 언제나 우호적이고 선의에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우리는 도나우강을 위대한 인격체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강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밤이 되면 우리는 천막 안에 누워 달을 향해 강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강만이 지닌 특이한 사각음이었다. 강바닥의 자갈

들이 빠르게 부딪히며 찢어지는 소리라고 했다. 강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흐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우리는 강이 만들어내는 다른 소리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한가롭게 흐르던 수면에 갑자기 거품이 터지며 생기는 소용돌이의 거친 소리, 얇은 물가와 급류의 굉음, 그리고 표면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깊은 곳에서의 끊임없는 울림, 그리고 얼어붙은 물이 강둑을 끊임없이 찢어내는 소리까지.

비가 강물의 표면에 수직으로 내리꽂일 때는 강이 거대한 몸집을 일으켜 외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바람이 상류로 불며 강물의 빠른 흐름을 막으려 할 때는, 그 웃음소리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다.

우리는 강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리와 목소리를 알았다. 물이 넘치고 거품이 일며 다리에 불필요하게 부딪히는 소리, 강 주변에 언덕이 있어 자신을 비출 수 있을 때 내는 자각 어린 수다스러운 소리,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 지나치게 중요해져서 웃지 않으려는 위엄 있는 목소리, 그리고 해가 느린 곡선으로 강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빛을 쏟아부을 때면 피어오르는 증기 사이로 새어 나오는 연하고 달콤한 속삭임까지.

도나우강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 이른 시절에도 장난기가 많았다. 슈바비아 숲이 우거진 상류 지역에는 아직 그 운명에 대한 첫 속삭임도 닿지 않은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강은 땅속의 구멍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다공성 석회암 언덕 너머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 다른 이름으로 새 강을 만들었다. 강물은 본래의 강바닥에서 거의 남아나지 않

았기에, 우리는 강에서 나와 걸어가야 했다. 얇은 여울을 헤치고, 노를 저어 카누를 밀며 수 마일을 건넜다.

초기에는 그 무책임한 젊음의 시기였기에, 도나우강은 브레어 폭스처럼 몸을 낮추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알프스에서 작은 격류들이 합류하기 직전, 강은 그들을 외면했다. 합류한 뒤에도 강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마일 동안 나란히 흐르며 경계선은 뚜렷했고, 수면의 높낮이조차 달랐다. 도나우강은 새로 온 자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사우 아래에서는 이 장난을 멈췄다. 인강이 굉음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었다. 인강은 모강을 밀치고 귀찮게 했다. 이어지는 긴 구불구불한 협곡에서는 두 강이 함께 흐를 공간이 거의 없었다. 도나우강은 절벽에 부딪혀 좌우로 밀려났다. 제때 통과하기 위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고, 앞뒤로 격렬하게 부딪히며 서둘러야 했다.

그 싸움 사이로 우리의 카누는 어깨에서 가슴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격렬하게 파도치는 물살 속에서 온갖 재미를 보았다. 인강은 오래된 강에게 교훈을 주었다. 파사우 이후로 도나우강은 새로 도착한 자들을 외면하는 체하지 않았다.

그건 며칠 전 일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거대한 생물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다.

슈트라우빙의 바바리아 밀밭 위를 지나며, 그녀는 더운 6월 햇살 아래로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표면의 몇 인치만이 물일 뿐, 그 아래에는 실크 장막에 감춰진 듯한 무수한 운디네들이 조용히, 그러나 보이지 않게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견되지 않도록 아주 여유를 부리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그녀가 강가에서 살던 새들과 동물들에게 보여준 친절함 때문에 그녀를 많이 용서했다.

가마우지들은 외진 강둑에 짧은 검은 울타리처럼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회색 까마귀들은 자갈밭을 가득 메웠고, 황새는 섬들 사이로 열려 있는 얇은 물길에서 낚시를 하며 서 있었다. 매와 백조, 그리고 온갖 습지새들이 반짝이는 날개와 노래 섞인 투덜거리는 울음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새벽녘 사슴이 물속으로 침범 뛰어들어 카누의 뱃머리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뒤라면, 강이 보여주는 기이한 변덕에 짜증을 내는 일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종종 관목 숲 사이에서 우리를 엿보는 새끼 사슴들을 보기도 했고, 강을 돌아서며 다른 구간에 진입할 때면 정면으로 마주한 사슴의 갈색 눈동자를 그대로 바라보기도 했다.

여우들도 강둑 곳곳에 기웃거렸다. 그들은 부러진 나무들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프레스부르크를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도나우강은 더 무거워졌다. 장난기 어린 기색은 사라졌다. 이제 강은 흑해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 다다랐고, 멀지 않은 곳에는 다른, 더 낮은 나라들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허용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았다. 강은 갑자기 성숙해졌고, 우리의 존경심과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요구했다.

강은 세 개의 줄기로 갈라졌다. 그 줄기들은 백 킬로미터쯤 더 내려가서야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카누를 탄 우리 앞에는 어느 줄기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도나우강의 지류를 따라가면,” 우리가 식량을 사기 위해 프레스부르크 가게에서 만난 헝가리 장교가 말했다. “홍수가 물러갈 때쯤이면, 어디에서도 40마일이나 떨어진 높은 곳, 완전히 마른 땅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굶어 죽기 쉽습니다. 사람도, 농장도, 어부도 없습니다. 계속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강물도 아직 오르고 있고, 이 바람은 더 강해질 겁니다.”

수위가 오르자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빠지면서 배가 좌초될 위험은 충분히 심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비축해 두었다.

나머지 부분은 장교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맑게 개어 있던 하늘 아래로 불어온 바람은 점점 세져, 마침내 서풍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캠핑을 시작한 시간은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해가 지평선에 닿기까지 한두 시간쯤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전히 뜨거운 모래 위에서 잠들어 있었기에, 나는 그를 놔두고 우리 숙소라 할 만한 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은 섬이라기보다는 강물 위에 솟아오른 작은 모래톱에 가까웠다. 넓이는 1에이커도 채 되지 않았다. 강물 표면보다 불과 2, 3피트 정도 높은, 초라한 모래톱이었다.

섬의 끝부분은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부서지는 파도 꼭대기에서 튕 물보라가 그 끝을 뒤덮고 있었다. 섬의 모양은 삼각형이었다. 뾰족한 끝부분, 즉 삼각형의 꼭짓점은 상류 쪽을 향해 있었다.

몇 분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붉은빛 물결이 우렁찬 포효와 함께 밀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도는 독을 통째로 쓸어내리려는 듯 거세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거품 많은 두 갈래의 물줄기가 되어 휩쓸고 지나갔다.

땅은 물의 충격과 흐름 때문에 진동했다. 바람이 버드나무숲을 덮치며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섬 자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상류로 1, 2마일 떨어진 곳까지, 나는 거대한 강물이 나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끄러지는 비탈길을 올라다보는 것처럼 강물

은 거품으로 하얗게 물들었고, 곳곳에서 솟구쳐 올라 햇빛을 향해 모습을 드러냈다.

섬의 나머지 부분은 버드나무들이 너무 뻥뻥하게 자라 있어 걷기에 불편했지만, 나는 어쨌든 섬을 한 바퀴 돌았다. 섬의 하류 쪽으로 갈수록 빛은 달라졌다. 강물은 어둡고 분노한 듯 보였다. 날아오르는 파도들의 등만 보일 뿐, 거품이 낀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뒤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바람이 파도들을 힘껏 밀어붙였다. 강물은 짧은 일 마일 동안 섬들 사이로 들락날락하며 흐르다가,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버드나무들 속으로 사라졌다. 버드나무들은 강물을 에워싸며, 물을 마시러 내려온 괴물 같은 태곳적 생물떼처럼 보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거대한 스펀지 같은 식물들이 강물을 자신들 속으로 빨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드나무들은 강물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압도적인 수로 뭉쳐 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 광경은 장엄했다. 완전한 고독과 기이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장면을 응시했다. 그러자 내 깊은 곳에서 특이한 감정이 서서히 꿈틀거렸다.

야생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기뻐하던 찰나, 뜻밖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거의 경계심에 가까운, 일종의 공포감이었다.

오르는 강물, 어쩌면 그것은 늘 불길한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바라보던 작은 섬들 대부분은 아마 아침이 되면 쓸려 사라졌을 것

이다. 이 막힘없이 우르르 쏟아지는 물줄기는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자극했다.

하지만 내 불안이 단순한 경외나 놀라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느낀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직접적으로 몰아치는 바람의 힘과도 관련이 없었다. 거의 몇 에이커나 되는 버드나무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풍경 전체에 검불처럼 흩어버릴 듯한, 그 비명 같은 폭풍이었다.

바람은 그저 스스로를 즐기고 있었다. 평평한 풍경 위로 이를 막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거대한 놀이에 동참하며 일종의 즐거움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낯선 감정은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겪었던 이 불안감은 너무 모호해서 그 근원을 추적해 적절히 대처할 수조차 없었다. 다만 나는 어렴풋이 그 감정이 나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 깨달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거대한 강도 그 일에 일조하고 있었다. 우리는 낮과 밤 내내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게 놓여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 힘과 장난을 친 듯한, 불쾌하고 모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연은 정말로 거대한 규모로 함께 장난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그 감정은 특히 버드나무들, 이 무수히 많은 버드나무 군락들에 더 강하게 매달려 있었다. 시야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뻗뻗이 자라나고, 군집을 이루며 밀려오는 버드나무들. 그들은 강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강을 질식시키려는 듯이 압박했고, 하늘 아래로 마일마다 밀집된 진열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감시하고,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요소의 문제를 넘어섰다. 버드나무들은 미묘하게 나의 불쾌감과 연결되었다. 그들의 방대한 수량 때문에, 어딘가 교묘하게 마음을 공격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상상력 앞에, 우리와 완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새로운 거대한 힘을 형상화해 내었다.

거대한 자연의 계시는 어쨌든 어딘가에서 우리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나도 그런 감정에 익숙했다. 산맥은 우리를 위압하고, 바다는 공포를 안긴다. 거대한 숲의 신비는 오직 그것만이 지닌 특유의 마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지점에서든 인간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비록 놀라움을 자아내더라도,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우리를 고양시킨다.

그러나 이 무리 지은 버드나무들 앞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들로부터 어떤 기운이 뿜어져 나와 마음을 포위하고 있었다. 경외감이 깨어났지만,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희미한 공포에 젖어 있는 경외감이었다.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그들 줄지어 선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바람에 거칠면서도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모습은 나에게 낯설고도 원치 않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의 세계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침입자였다. 머물기를 환영하거나 초대받지 못한 곳이었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분석을 통해 온전히 그 의미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는 위협으로 변해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 느낌은 나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폭풍우 치는 가운데 텐트를 치고, 스텐을 꿰칠 불을 피우는 바쁜 와중에도 그랬다.

그 기운은 그저 조금만 남아 나를 번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캠핑장조차도 그 매력을 반쯤은 빼앗아 갔다. 하지만 나는 동료에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상력이 결여된 인간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내가 설명하려 했다면 그는 바보처럼 웃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섬 중앙에는 약간 움푹 패인 곳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텐트를 쳤다. 주변 버드나무들이 바람을 약간 막아주었다.

“초라한 야영지군.” 드디어 텐트가 세워지자, 평정심을 잃지 않던 스웨덴인이 말했다. “돌도 없고 장작도 거의 없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게 좋겠어. 어때? 이 모래는 그 무엇도 지탱하지 못해.”

하지만 한밤중에 텐트가 무너진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집시처럼 아늑한 오두막을 최대한 안전하게 꾸렸고, 잠들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떨감을 모으기 시작했다. 버드나무는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떠밀려 온 나무들, 즉 표류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해안을 거의 살살이 뒤졌다. 어디를 봐도 강둑은 물이 차오르며 무너지고 있었다. 거대한 물결이 강둑을 파고들며 큰 덩어리를 철벽거리고 팔팔거리는 소리와 함께 휩쓸고 갔다.

“우리가 상륙했을 때보다 섬이 훨씬 작아졌어요.” 정확한 스웨덴인이 말했다. “이 속도로는 섬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카누를 텐트 근처로 끌어다 두고,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잠들겠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둑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넌 때, 나는 그의 꽤나 경쾌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저런!”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나는 그 외침의 원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버드나무들 뒤에 가려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를 찾아낼 수 없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가 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뛰어 올라 강가에서 그와 합류했다. 그는 강을 내려다보며 물속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 사람이야!” 그가 흥분하며 외쳤다. “봐!”

검은 무언가가 거품 섞인 파도 속에서 뒤엎키며 빠르게 지나갔다. 그것은 사라졌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약 2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갑자기 방향을 틀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해가 지는 빛을 반사하는 그 눈과, 몸이 뒤집힐 때 이상한 노란빛을 띠며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급격하게 숨을 들이마시듯 물속으로 뛰어 들었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달이로구나!” 우리는 한꺼번에 외치며 웃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수달이었다. 사냥을 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물살에 힘없이 몸을 맡긴 채 헤매는 익사자의 시체와도 정확히 닮아 있었다.

수달은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는 햇살에 젖어 빛나는 검은 털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땀감으로 가득한 팔을 들고 되돌아설 때였다. 강둑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일이 또 하나 일어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이었다. 그것도 배를 탄 사람이었다. 도나우강에서 작은 배를 보는 것은 언제나 드문 일이었지만, 이 황량한 지역, 홍수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다. 우리는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환상적으로 빛나는 물빛의 굴절 때문인지,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원인은 어쨌든 그 날아다니는 형상을 제대로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 사내였다. 그는 평평한 바닥의 작은 배에 서서 긴 노로 조타를 하고 있었다. 배는 반대쪽 강가를 따라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우리 쪽을 향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빛도 불확실해서,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뚜렷이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우리에게 손짓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강 너머로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를 격분하여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단 한 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사내와 배, 손짓, 목소리. 이 모든 모습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원인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성호를 긋고 있어!” 내가 외쳤다. “봐, 그가 성호를 긋고 있어!”

“맞는 말일세.” 스웨덴인이 눈을 가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이 굽이치는 곳, 햇살이 버드나무들 위에 내려앉아 붉은 빛의 아름다운 벽을 이룬 그곳으로, 그는 녹아들어갔다. 안개도 피어올라 공기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그가 밤이 되자 이 범람한 강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때에 그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리고 그 징후들과 외침은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던 걸까?”

“우리 연기를 보고는 아마도 우리를 영혼цом으로 생각했겠지.” 동료 가 비웃듯 말했다. “이 헝가리 사람들은 온갖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지. 프레스부르크에서 우리한테 이 곳에는 절대로 사람이 내려앉지 않는다고 경고했던 점원 기억나지? 그곳은 인간 세계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의 소유라고 말이야. 아마 요정이나 원소신, 더구나 악마 같은 것도 믿는 모양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덧붙였다. “배를 저운 농부는 평생 처음 보는 섬 위의 사람들을 본 거야. 그래서 놀란 것뿐이지.”

스웨덴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다. 평소에는 분명히 느껴졌던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 변화를 즉각 알아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정의할 수는 없었다.

“상상력이 풍부했다면,”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기억나건대, 나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큰 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그들은 이 같은 곳에 고대의 신들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제단과 신성한 숲, 그리고 원초적인 신들을 통해 이 일대를 어딘지 모르게 떠돌았을 테니까.”

주제는 거기서 끝났다. 우리는 다시 국 끓이는 냄비 곁으로 돌아갔다. 친구는 평소에도 상상력이 풍부한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가 상상력이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무뚝뚝하고 실용적인 성격이 갑자기 반갑고 안심되는 것으로 다가왔다. 그는 훌륭한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인디언처럼 급류를 헤치고, 내가 본 어떤 백인보다도 위험한 다리와 소용돌이를 잘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다. 모험적인 여행에는 그만한 동료가 없었고,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그의 힘이 가장 든든했다.

그는 머리에 나무 더미를 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 나무 더미는 내 것의 두 배는 되어 보였다. 나는 그의 단단한 얼굴과 밝은 곱슬머리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스웨덴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말에 숨은 의미를 담지 않는다는 사실에 확실히 기뻐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 그는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짐을 내려놓았다. “이대로라면 이 섬은 이틀 뒤면 물에 잠길 거야.”

“바람만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네.” 내가 말했다. “강물은 상관없어.”

사실 홍수는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못했다. 우리는 10분이면 떠날 수 있었고, 물이 많을수록 더 좋았다. 물이 많다는 것은 빠른 흐름을 의미했고, 우리 카누의 바닥을 찢어놓을 듯이 자주 위협하던 위험한 자갈밭을 지워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해가 지고도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바람은 거세졌고, 머리 위를 울부짖으며 우리 주변 버드나무들을 가느다란 대들처럼 흔들었다. 가끔은 무거운 대포가 터지는 듯한 기이한 소리도 함께했다. 그 바람은 거대한 평면의 타격처럼, 막대한 위력을 가지고 강물과 섬을 강타했다. 그 소리는 만약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주 공간을 질주하는 행성이 내는 소리와 같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완전히 맑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름달이 동쪽 하늘로 떠올랐다. 달빛은 도나우강과 함성 같은 소리를 지르는 버드나무들이 있는 평야 전체를 낮처럼 밝게 비쳤다.

우리는 모래밭 위에 누워 불가에서 담배를 피웠다.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미 다녀온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지도는 텐트 입구에 펼쳐져 있었지만, 강풍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기 힘들었다. 곧 커튼을 내리고 등불을 끄었다. 불빛만으로도 담배를 피우고 서로의 얼굴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불꽃들이 머리 위를 마치 폭죽처럼 날아다녔다.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는 강물이 거품 섞인 소리를 내며 흐르고, 때때로 무거운 철병 소리가 들리며 강둑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을 알렸다.

우리 대화는 주로 먼 과거의 일들로 이어졌다. 흑림에서 처음 장막을 쳤을 때의 풍경이나, 현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들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의 일에 대해 필요한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다. 마치 암묵적으로 그 캠프와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피하기로 한 듯했다.

가령 수달이나 뱃사공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이 두 존재가 저녁 시간 대부분을 채울 만큼 풍부한 화제가 되었을 터였다. 물론 그런 장소에서는 그들 역시 뚜렷한 사건들이었으니까.

나무가 귀해 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몫이었다. 바람이 우리 앉아 있는 곳 어디로든 연기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람은 강제적인 기류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차례를 정해 어둠 속으로 땀감을 구하러 나갔다. 스웨덴인이 가져온 양은 항상, 그가 그것을 찾느라 터무니없이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실 나는 혼자 남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빛 아래에서 덩불을 헤매거나 미끄러운 강둑을 기어오르는 것은 늘 내 차례인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바람과 물과 싸우느라 지쳤다. 정말 그런 바람과 그런 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명백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둘 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불을 보며 누워 있었다. 산발적으로 수다를 떨며, 뽁뽁한 버드나무들 사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람과 강물의 천둥 같은 굉음을 들었다.

그곳의 고독은 우리 뼈속까지 파고들어 있었다. 침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잠시 후 우리 목소리는 조금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속삭이는 것이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느꼈다. 요소의 굉음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는 항상 조금 어색한 존재였다. 이제는 거의 불법적인 것을 담고 있는 듯했다.

교회에서, 혹은 들리는 것이 적법하지 않고 어찌면 완전히 _안전하지도_ 않은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았다.

이 외로운 섬은 백만 그루의 버드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허리케인이 몰아쳤고, 급히 흐르는 깊은 물결이 섬을 에워쌌다. 나는 그 음산함이 우리 둘 모두를 사로잡았으리라 생각한다.

사람이 발을 딛지 못했고,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이 섬은 달빛 아래 누워 있었다. 인간의 영향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다른 세계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다. 낯선 세계, 오직 버드나무들과 버드나무들의 영혼들이 사는 세계였다.

그리고 우리는 무모하게도 그곳을 침범했다. 심지어 그곳을 이용하려 들었던 것이다.

나는 모래 위에 누워 발을 불 근처에 대고, 나뭇잎 사이로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신비의 힘 이상의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렁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어나 장작을 구하러 일어섰다.

“이 불이 다 타버리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겠네.”

내 뒤로 사라지는 그림자 속을 바라보며, 동료의 게으른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치고는, 그날 밤 그는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도 남달리 열려 있었다. 그 역시 이 곳의 아름다움과 고독에 영향을 받은 듯했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을 때,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나뭇가지들을 주우러 바로 나서기보다는, 나는 섬의 끝부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평원과 강 위에 비친 달빛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찾아왔다.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강하게 밀려왔다. 나는 어떤 모호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보고 싶었다.

파도 사이로 돌출된 모래톱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기운이 나를 강타했다. 단순한 ‘풍경’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뭔가 더 있었다. 나를 놀라게 할 무언가.

나는 광활한 야생의 물결 너머를 응시했다. 속삭이는 버드나무들을 지켜보았다. 끝없이 불어대는 지친 줄 모르는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각자의 방식으로 내 안에 기이한 불안감을 일깨웠다.

특히 버드나무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 웃기도 하고, 날카롭게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떠들썩하게 논 주제는 그들이 사는 이 광활한 평야의 비밀스러운 삶에 속한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야생이지만 자비로운 자연의 원리조차도 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그들을 다른 차원의 존재들로 생각했다. 아마도 전혀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친 생명체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신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수풀 같은 머리를 이상하게 흔들며,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잎들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계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예민한 ‘공포’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우리 진지를 에워싼 거대한 군대처럼. 그들은 무수히 많은 은빛 창을 거침없이 흔들며 공격을 준비한 채로 줄을 서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장소의 심리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특히 떠돌이들에게는 야영지의 ‘분위기’가 환대를 보내는지, 아니면 쫓아내려는지 명확하게 전달된다. 처음에는 텐트를 치고 요리를 준비하는 바쁜 소란 때문에 그 기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를 때, 보통 저녁 식사 직후에 그 기운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이 버드나무 숲의 야영지가 보내는 신호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입자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들이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서히 지켜보면서 낮췄의 감각은 내 안에 깊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하룻밤 묵는 정도라면 아마도 용인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길게 머물며 호기심을 드러내는 체류는 안 된다. 나무들과 황야의 모든 신들이여,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 섬에 발을 들인 첫 인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버드나무들은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밀려온 기이한 생각과 기묘한 상념이 자리 잡았다.

만약 이 웅크린 버드나무들이 사실 살아있는 존재라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침범한 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신들의 지휘 아래, 살아있는 생물 떼처럼 갑자기 일어서서 거대한 습지 너머로 우리 쪽으로 밀려온다면? 밤하늘을 울리며, 그리고 마침내 _앉아 버린다면?_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조금 더 가까이 기어 오르고, 다시 물러나며, 적대적인 태도로 뭉쳐서 마침내 그들을 달아 오르게 할 거대한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쉬웠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줄이 깊어지며, 서로 더 뻥뻥하게 밀착하는 것 같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늘 위에서 밤새는 새의 비명 같은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서 있던 강둑 일부가 홍수에 의해 밑이 파여 거대한 물소리와 함께 강물로 떨어졌다. 나는 가까스로 균형을 잃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

이상한 공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그 기묘한 생각들에 반쯤 웃으며 다시 장작을 찾으러 나섰다. 스웨덴인이 내일 떠나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던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요란한 자연의 굉음이 그의 접근을 가려주었던 것이다.

“너 너무 오래 안 왔어.” 그는 바람 소리를 뚫고 외쳤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그러나 그의 어조에는, 그리고 얼굴 표정에는 평소 말투로는 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찾아온 진짜 이유를 나는

깨달았다. 바로 그곳의 마력이 그의 영혼까지 스며들어,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물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가 달빛에 잠긴 홍수를 가리키며 외쳤다. “바람도 정말 끔찍해.”

그는 늘 같은 말만 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진한 무게를 더한 것은, 고독한 외로움에 대한 간절한 호소였기 때문이다.

“운이 좋네,” 내가 외쳤다. “우리 텐트는 오목한 땅에 쳐 났어. 잘 견딜 거야.”

나는 나무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덧붙여, 내가 자리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바람이 내 말을 잡아채 강 건너편으로 날려 보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했다. 단지 나뭇가지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재수 좋으면 큰일 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거야!” 그가 외쳤다. 아니, 그런 뜻의 말을 던졌다. 나는 그에게 반쯤 화가 났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그 생각을, 그가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재앙이 임박해 있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나에게 불쾌하게 짓눌려왔다.

우리는 다시 불가로 돌아가 발로 불을 쭉서 마지막 불꽃을 피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만약 바람이 없었다면, 그 열기는 불편했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자 친구

의 대답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꽂혔다. 그는 이 ‘마귀 같은 바람’보다는 열기, 평범한 칠월의 날씨를 더 낫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밤을 맞아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텐트 옆에는 카누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 노란 노 두 개는 그 아래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에 식량 주머니를 매달아 두었고, 불 근처에서 씻어 둔 그릇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치워져 있었다.

우리는 모래로 불의 재를 완전히 덮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텐트 문 자락이 올라간 채였기에, 나는 나뭇가지와 별들, 그리고 하얀 달빛을 볼 수 있었다. 흔들리는 버드나무들, 그리고 팽팽하게 당겨진 우리 작은 집(텐트)을 향해 거세게 부딪히는 바람의 타격이,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잠이 내려와 모든 것을 부드럽고도 달콤한 망각으로 덮어주기 전까지.

II.

갑자기 잠이 깨어 누워 있었다. 모래빛 매트리스 위에서, 텐트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캔버스에 고정된 내 시계를 봤다. 밝은 달빛 아래, 시간이 자정을 넘겼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미 두세 시간쯤 잤던 것이다.

스웨덴인은 여전히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바람은 예전처럼 울부짖었다. 무언가 내 심장을 잡아당기듯 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내 바로 근처에서 어떤 교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거친 바람이 나무들을 강타하자, 나무들은 격렬하게 앞뒤로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 작은 녹색 천막은 오목한 땅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 안전했다. 바람이 천막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천막을 심하게 흔들 만큼의 저항은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천막 밖으로 기어나와, 우리의 짐들이 안전한지 확인했다. 동료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묘한 흥분이 내게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네 발로 엮드린 채 반쯤 몸을 빼내던 참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눈앞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강 건너편 관목들 위로, 흔들리는 나뭇잎의 그물망이 하늘을 배경으로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다시 앉아서 응시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맞은편, 내 시선보다 약간 높은 곳에 버드나무들 사이로 알 수 없는 형체들이 서 있었다.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형체들을 둘러싸듯 모여들었고, 달빛 아래로 빠르게 변하는 기괴한 윤곽선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것들이 내 앞 약 50피트 지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 든 생각은 동료를 깨워 함께 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그 증언이 내게 반가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사이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쓰라린 눈으로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나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그 거대한 형상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관목들의 꼭대기 바로 안쪽이었다. 그들은 거대했고, 청동빛을 띠었으며, 움직

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지들의 흔들림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내가 좀 더 차분히 그들을 살펴보기 위해 시선을 집중했을 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컸다. 아니, 그들의 외양은 그들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달빛에 비친 가지들의 움직이는 그물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에 닿자마자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얹혀 하나의 거대한 기둥을 이루었고, 나는 그들의 팔과 거대한 몸체가 서로 녹아들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비틀림에 맞춰 구불거리고, 흔들리고, 나선형으로 꼬이는 뱀 같은 선을 형성했다.

그들은 맨몸의 유동적인 형상이었고, 관목들을 따라 올라갔다. 거의 앞사귀 안쪽을 지나는 듯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둥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얼굴은 결코 볼 수 없었다. 끊임없이 그들은 위쪽으로 쏟아져 올랐고, 큰 굽은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그들의 피부에는 칙칙한 청동빛이 감돌았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응시했다. 내 눈의 모든 원자까지 동원해 보려 애썼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이 매순간 사라져 나뭇가지의 움직임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광학적 착각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현실의 증거를 사방에서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기준이 이미 바뀌어 버렸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더 오래 바라볼수록, 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 형상들은 실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비록 카메라나 생물학자가 고집할 표준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두려움은 커녕, 나는 전례 없는 경외감과 신비로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이 음침하고 원시적인 땅의 정령들이 형체를 드러낸 듯했다. 우리 일행의 침입이 이 곳의 힘을 깨워 활동하게 만든 것이다. 교란의 원인은 바로 우리였다. 내 머릿속은 온통 세계 역사 속 모든 시대, 모든 땅에서 숭배받아 온 영혼과 신들에 관한 전설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내릴 새 없이, 무언가가 나를 더 멀리 나가라고 재촉했다. 나는 모래 위를 기어 나가 곧장 일어섰다. 맨발 아래 땅은 아직 따뜻했고, 바람은 내 머리와 얼굴을 휘저었다. 강물은 갑자기 우렁찬 굉음과 함께 내 귀를 때렸다.

이 모든 것이 실재함은, 내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 형상들은 여전히 고요하게, 우아하고 힘찬 거대한 나선형으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 광경은 마침내 나를 진정한 깊은 경외감에 빠뜨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오직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나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내 몸을 강타했다. 나는 옆으로 날아갈 듯이 흔들렸고, 넘어질 뻔했다. 그 바람

은 꿈속의 환상을 강하게 흔들어 깨뜨렸다. 적어도 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그 형상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여전히 밤의 중심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이성이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관적인 것이다.’

달빛과 가지들이 모여 내 상상력의 거울 위에 이 그림들을 그려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것들을 바깥으로 투사해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론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별거숭이 모래밭 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환상이었을까? 단지 주관적인 것일까? 나의 이성은 이미 알려진 작은 기준으로부터, 쓸모없는 방식으로 추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거대한 기둥 같은 형상들이 어둠 속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그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 형상들은 매우 완전한 현실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거대한 존재감이 남긴 즉각적인 경이로움이 지나간 뒤, 공포가 차가운 물결처럼 밀려왔다.

이 외롭고 귀신이 머무는 듯한 땅의 숨겨진 의미가 갑자기 내 안에서 타올랐다. 나는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운 공포의 시선이었다. 헛된 탈출구를 계산하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을 때, 나는 조용히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 갔다. 그리고 다시 모래 매트 위에 누웠다.

먼저 달빛 아래 있는 버드나무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문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소음을 죽이기 위해, 무서운 바람의 소리를 최대한 차단하려 이불 속으로 고개를 깊이 파묻었다.

III.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는 듯, 그 후로는 오랫동안 다시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잠들었을 때도, 몸의 표면만 잠들었을 뿐이었다. 그 아래에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깨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나를 깨운 것은 바람도, 강물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꿈속의 내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고, 결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곧장 앉아 귀를 기울였다.

바깥에는 수많은 작은 발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깨어 있었지만, 그 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았다. 잠들었을 때 처음 들렸던 그 소리는 이제 더 선명해졌다. 나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고, 마치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내 몸 위에는 무거운 무게가 실린 것 같았다. 더운 밤이었지만, 나는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텐트 벽을 꾸준히 누르고 있었고, 위에서 아래로 무게를 실리고 있었다. 바람의 몸체였을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을까?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었을까? 강에서 불어온 바람에 의해 날려진 물방울들이 큰 물방울로 모여들고 있었을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빠르게 떠올렸다.

그때 갑자기 해답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섬에 유일하게 자라고 있던 큰 포플러나무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 나뭇가지는 아직 다른 가지에 걸려 붙어 있었지만, 다음 돌풍이 불면 곧장 떨어지며 우리를 짓눌렀을 것이다. 그사이 나뭇잎들이 우리 텐트의 팽팽한 천막 표면을 스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나는 천막의 헐거운 부분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스웨덴인에게 뒤따르라고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몸을 일으켜 서자, 텐트가 완전히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달린 나뭇가지도, 비나 물보라도 없었다.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았다.

차가운 회색빛이 관목 사이로 스며들어, 희미하게 빛나는 모래밭 위에 내려앉았다. 머리 위 하늘에는 별들이 여전히 가득했고, 바람은 위

용을 떨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불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고, 나무 사이로 동쪽 하늘이 줄무늬처럼 붉게 물들어 가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 서서 상승하는 형상들을 지켜본 지가 몇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때의 기억은 이제 악몽처럼 끔찍하게 되살아났다. 끝없이 분노하는 바람이 얼마나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의 깊은 무기력함이 나를 덮고 있었지만, 신경은 그에 못지않게 지칠 줄 모르는 불안감으로 저릿거렸다. 쉴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다.

내가 본 강물은 더 불어났다. 강물의 굉음이 공기를 채웠고, 미세한 물보라가 얇은 잠옷을 적셨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나를 놀라게 할 만한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을 깊고 길게 뒤흔든 이 혼란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동료가 내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야 깨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뒤집힌 카누. 노란 노. 두 개였다. 확신했다. 식량 주머니. 그리고 나무에 함께 매달린 여분의 등불. 그리고 내 주변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 버드나무들. 끝없이 흔들리는 버드나무들. 새가 아침 울음소리를 질렀다. 오리의 무리가 웅웅거리는 날개 소리와 함께 머리 위 황혼 속을 지나갔다. 모래바람이 내 맨발 주위를 건조하게, 그리고 쏘이듯 휘몰아쳤다.

나는 천막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강 건너편 풍경이 보이도록, 약간 안쪽으로 나뭇가지 숲으로 들어갔다.

동틀 녘의 흐릿한 빛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수풀의 바다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유령처럼,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전과 똑같고도 깊고도 정의할 수 없는 불안감이 다시 나를 덮쳤다.

나는 조용히 이곳저곳을 거닐었다. 나를 깨운 그 기이한 소리, 즉 끝없이 퍼붓는 듯한 소리와 천막을 누르던 압력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반드시 바람이었겠지.’ 나는 생각했다. 느슨하고 뜨거운 모래 위를 실어 나르며, 마른 입자들을 단단히 팽팽하게 당겨진 천막에 부딪치게 하는 바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붕 위에 무겁게 떨어지는 바람.

그런데도 나는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나는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 밤새 해안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강이 얼마나 많은 모래를 쓸어갔는지 살폈다. 나는 손과 발을 시원한 물결에 담그고 이마를 적셨다. 하늘에는 이미 일출의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다가올 아침의 정교한 청량감이 가득했다. 돌아오는 길, 내가 기둥처럼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형상들을 보았던 그 덩불 바로 아래로 일부러 지나쳤다. 덩불 무리 한가운데서 나는 뜻밖에도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빠르게 지나갔다. 누군가 나를 지나쳤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나간 것만큼이나 분명했다.

거대한 바람이 나를 밀어주듯 세차게 휘몰아쳤다. 덕분에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더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오니, 놀랍게도 공포심이 사그라들었다.

바람이 돌아다니고, 바람이 걷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무들 아래에서는 바람이 종종 거대한 존재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 주변을 맴돌던 공포는 알 수 없고 거대한 것이었다. 내가 전에 느껴본 어떤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공포의 가장 끔찍한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섬 한가운데 있는 높은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강이 넓게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출의 붉은 빛을 받아 강물은 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은 너무도 압도적이었다. 어떤 야생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깨어났고, 그것은 거의 목구멍까지 울음을 올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시선이 너른 들판에서 내 주변을 둘러싼 섬, 그리고 버드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우리 작은 텐트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때, 끔찍한 발견이 나를 덮쳤다. 그 충격 앞에서는 걷는 바람에 대한 나의 공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언젠가부터 풍경의 배치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시야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텐트와 버드나무들, 그리고 버드나무들과 텐트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변해 있었다. 확실했다.

수풀이 훨씬 더 가까이 뻣뻣하게 들어차 있었다. 불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버드나무들이 더 가까워진 것이다.

버드나무들은 침묵의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모래밭 위를 기어오듯 다가왔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움직임으로, 눈치 채기 어려울 정도로 점진적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밤새 버드나무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그들을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움직인 것일까? 나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발소리의 기척과 천막을, 그리고 내 심장까지 누르던 그 압력을 떠올렸다. 그 압력 때문에 나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다.

나는 모래 언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잠시 몸을 비틀었다. 바로 서 있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의지, 즉각적인 의도, 그리고 공격적인 적의가 느껴졌다. 그 기운은 나를 경직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때 반응이 빠르게 따라왔다. 그 생각은 너무 기묘하고, 너무 터무니없어서, 나는 웃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명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이러한 위험한 상상에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적인 공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공포는 그 공격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이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이 나를 사정없이 밀어붙였다. 어느새 해가 수평선 너머로 솟아 올랐다. 네 시가 훨씬 지난 시각이었다. 나는 버드나무들과의 근접전을 피하기 위해, 그 모래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그곳에 서 있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힌 듯이 텐트로 돌아갔다. 먼저 사방을 다시 한 번 살살이 살피보았다. 그리고 시인하기 싫었지만, 몇 가지 측정을 해보았다. 따뜻한 모래 위를 걸으며 버드나무들과 텐트 사이의 거리를 재었다. 특히 가장 짧은 거리를 꼼꼼히 기록했다.

나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내 동행자는 겉보기에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나의 경험이 다른 누구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어찌 그것들을 부정할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 뜨면, 나는 그것이 모두 주관적인 환각이며, 밤의 공상, 흥분한 상상이 투사한 결과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이후로 나를 방해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거의 즉시 잠들었다. 온몸이 다 풀릴 듯이 지친 탓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릴까 봐 두려웠다. 수많은 발걸음이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혹은 숨을 쉬기 힘들게 내 심장을 짓누르던 그 압박감이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려웠다.

IV.

해가 이미 하늘 한가운데에 치솟을 무렵, 동료가 나를 무거운 잠에서 깨웠다. 죽이 다 익었고, 목욕할 시간도 겨우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텐트 문틈으로 지글지글 익는 베이컨의 고마운 향기가 스며들었다.

“강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강 한가운데 있던 섬 몇 개는 완전히 사라졌지. 우리 섬도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어.”

“나무 좀 남았나?” 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무와 섬은 내일 동시에 끝장날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만큼은 충분히 남아 있어.”

나는 섬의 끝부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밤사이 섬의 크기와 모양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반대편 텐트 맞은편 부두로 끌려 내려갔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둑은 급행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빠르게 흘렀다. 이런 조건에서 목욕하는 것은 짜릿한 경험이었다. 밤새 몰아쳤던 공포는 뇌 속에서 증발하듯 사라져 나갔다. 해는 맹렬히 내리쬘고 있었다. 어디든 구름 한 점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바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스웨덴인의 말이 가진 숨은 뜻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서둘러 떠나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었다. “내일까지는 버틸 만하다.” 그는 우리가 섬에 하룻밤 더 머물 것이라 여겼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룻밤 전만 해도 그는 정반대로 단호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침 식사 중 강독이 거대한 덩어리로 무너져 내렸다. 거센 물소리와 함께 튼 물보라가 바람을 타고 우리의 프라이팬 안으로 날아들었다. 내 동행자는 비엔나와 부다페스트를 오가는 증기선들이 홍수 때문에 수로를 찾기 얼마나 고생할지 끝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강물의 상태나 증기선들의 난관보다, 그의 심리 상태가 나를 더 깊이 사로잡았다. 그는 어제 밤 이후로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약간 흥분된 기색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어딘지 쑥스러워 보였다. 목소리와 제스처에는 묘한 의심의 기운이 감돌았다. 지금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 해도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가 공포에 질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그 옆에는 펼쳐진 지도가 놓여 있었고, 그는 지도의 표시들을 계속 응시했다.

“한 시간 뒤면 내려가는 게 좋겠어.” 나는 곧장 말을 건넸다. 그가 어쩔 수 없이 반쯤은 자백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지. 만약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둔다면 말이야.”

“누가 우리를 내버려두겠어? 자연의 힘이라도?” 내가 억지스러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재촉하듯 물었다.

“이 끄찍한 곳의 힘은, 비록 그것이 누구든,” 그는 지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신들이 여기 있어. 이 세상 어디엔가 신들이 존재한다면 말이야.”

“자연의 요소들은 언제나 진정한 불멸자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연기를 뚫고 내게 말을 건넬 때, 내 얼굴이 나의 진정한 감정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더 큰 재앙 없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운 좋은 거야.”

나는 정확히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나는 직접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는 치과 의사가 이를 뽑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와야 할 일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위장에 불과했다.

“더 큰 재앙이군! 대체 무슨 일이?”

“무엇보다도, 조타 패들이 사라졌어.” 그가 고요하게 말했다.

“조타 패들이 사라졌다!” 내가 되뇌었다. 흥분된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키였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도나우강에서 키 없이 배를 몰아간다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대체 뭐지—”

“그리고 카누 바닥에 찢어진 곳이 있어.” 그가 덧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로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읽힌 무언가를 따라, 어리둥절하게도 나는 그저 그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태양의 열기가 내리쬐는 곳, 불타오르는 모래 위였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으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너머 몇 야드 떨어진 텐트 쪽으로 길을 나섰다. 따라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때 그 보트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밤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이, 뼈대 위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노, 아니 정확히 말해 그 하나의 노가 모래 위에 놓여 있었다.

“한 개뿐이네요.” 그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위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바닥판에 찢어진 자국이 있군요.”

그에게 내가 몇 시간 전 분명히 노가 두 개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자 말하기를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았다.

카누 바닥에는 길고도 정교하게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나무 한 조각이 깔끔하게 파여 나간 자리였다. 날카로운 바위나 수중 장애물의 이빨이 카누의 길이를 따라 파고든 것처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구멍이 통째로 뚫려 있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카누를 띄웠다면, 필연적으로 침몰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물기가 나무를 부풀려 구멍을 막았겠지만, 강 한복판

으로 나가면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다. 수면 위 두 인치 정도만 뜨던 카누는 순식간에 물에 잠겨 가라앉았을 것이다.

“보라, 희생물을 제단에 올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내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혼자 하는 말에 가까웠다. “아니, 오히려 두 희생물이군.” 그가 덧붙이며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 틈새를 따라 손가락을 살며시 훑었다.

나는 종종 당황하면 무의식적으로 휘파람을 불곤 했다. 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나는 그의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어젯밤에는 없었어.” 그가 곧장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을 피하며 어디든 바라보았다.

“물론 강에 내려앉는 바람에 굶혔겠지.” 나는 휘파람을 멈추며 말했다. “돌들이 너무 날카로웠으니까.”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그가 몸을 돌리며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기 때문이다. 내 설명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나는 그와 똑같이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돌이란 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덧붙이며 노를 내게 건네고, 노날을 가리켰다.

그것을 집어 들고 자세히 살펴보자, 새롭고 기이한 감정이 내 전신을 얼어붙게 했다.

노날 전체가 깔끔하게 깎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사포질을 한 듯했다. 노날은 너무도 얇게 깎여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찬 타격만으로도 팔꿈치 부분에서 쉽게 부러졌을 정도였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잠결에 이 일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바람에 실려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래 입자들이 서서히 깎아낸 결과일지도 모르니다.”

“아,” 스웨덴인이 돌아서며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군요.”

“그 같은 바람이 조타 노를 건드리고, 강둑 근처로 날려 보냈죠. 그러다 다음 덩어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 노는 함께 강물에 떨어졌다고요.”

나는 그에게 뒤따라가며 소리쳤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알겠소.” 그는 버드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기 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이처럼 개인적인 의지가 개입된 듯한 이상한 증거들만 남겨둔 채 홀로 남았을 때, 나의 첫 번째 생각은 명확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아니다.”

그러나 곧이어 떠오른 두 번째 생각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했다. 열두 번이나 함께한 유사한 원정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였던 내 동료가, 고의적으로 이 일에 가담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단 한 순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다.

또한, 이토록 평정심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 그가 갑자기 미쳐서, 미친 듯한 목적을 위해 무언가 행위를 했다는 설명 역시 똑같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햇살이 쏟아지고 거친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나를 가장 크게 흔들며 두려움을 선명하게 간직하게 만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이었고, 소심했으며, 의심에 차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의 진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할 수 없었던 일련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그가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아마도 곧 닥칠 것으로 기대했던 절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직관적으로 자라났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나는 텐트와 그 주변을 급하게 살폈다. 하지만 밤이 남긴 흔적은 여전했다.

모래 위에는 깊은 오목한 자국들이 패여 있었다. 처음 보는 형국이었다. 그릇 모양을 띠고 깊이나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찻잔만 한 것도 있고 큰 그릇만 한 것도 있었다.

이 작은 분화구 같은 자국들은 바람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노를 들어 물가 쪽으로 던져버린 것도 바람 탓이었다.

그런데 카누에 난 찢어진 자국만큼은 도무지 설명이 가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강가에 닿을 때 날카로운 물체에 걸려 찢어졌을 가능성은 있었다.

해안가를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추측을 뒷받침할 단서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생각에 매달렸다. 이성을 유지하고 있던 나의 작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필요했다. 마치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처럼, 비록 터무니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필요였다.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삶의 문제에 직면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그 설명은 행복의 조건이었다.

그때로선 그 비유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듯했다.

나는 곧장 피치를 녹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웨덴인도 내 곁에 와서 일손을 보탤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해도, 이 카누는 다음 날이 되어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래땅의 오목한 곳들로 돌렸다.

“알고 있습니다. 섬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물론 바람이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거리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을 본 적 없나? 이 모래는 충분히 느슨해서 바람에 쉽게 휩쓸리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그를 몰래 지켜보았고, 그도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항상 내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혹은 그가 기대하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돌아서서 수풀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버드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물 너머를 응시했다. 때로는 귀에 손을 대고 몇 분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동안, 그가 찢어진 카누를 붉은 인디언의 솜씨로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작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버드나무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그가 말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나의 상상력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상한 일이야.” 그는 재촉하듯, 하지만 무언가를 말하고는 빨리 끝내고 싶은 듯한 어조로 덧붙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어제 밤 그 수달에 대해 말야.”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상하고 있던 터라 그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곳이 얼마나 외로운 곳인지 보여준다. 수달은 정말 겁이 많은 동물이니까.”

“그건 내가 뜻한 바가 아니야.” 그가 말을 끊었다. “내가 묻는 건— 너는—그게 정말 수달이라고 생각했니?”

“맙소사, 그게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나 먼저 봤어. 너보다 훨씬 먼저. 처음엔 수달보다 훨씬, 훨씬 커 보였거든.”

“상류 쪽을 바라볼 때 일몰이 그것을 더 크게 보이게 했죠.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라고 나는 답했다.

그는 잠시 동안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 눈이 너무 기이하게 노랗더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도 해였지.” 나는 약간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그 배에 탄 남자를 두고도 의아해하겠지?”

나는 그 문장을 끝내지 않기로 갑자기 결정했다. 그는 다시 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 주제는 자연스럽게 흐려졌고, 우리는 다시 코킹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내 미완의 문장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5분 후, 그는 손에 연기가 나는 피치를 든 채, 카누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매우 진지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죠,”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 배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일이 물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 속에 조바심이 섞여 있었고, 분노의 기색도 감돌았다.

“잠깐만요. 이 곳만 해도 충분히 기이한데, 굳이 상상력을 동원해 이상한 걸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배는 평범한 배였고, 그 안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가능한 한 빠르게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수달 역시 진짜 수달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우를 범하지 맙시다.”

그는 같은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조금도 성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서 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제발,” 내가 계속 말했다. “네가 무언가를 듣는 척 계속 하지 마. 그게 나를 너무 긴장시키거든. 들리는 건 강물 소리랑 이 저주받은 거친 바람소리뿐이니까.”

“바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놀람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너는 정말 바보야. 모든 희생자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네가 나만큼이나 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는 비웃음과 함께, 동시에 어떤 체념이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조용히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최대한 단단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기를 속이려는 이런 연약한 시도는,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 그 진실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 뿐이야.”

내 작은 노력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말이 진실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보가 나는 그가 아니라, 바로 _나_였으니까.

모험의 한 단계까지는 그가 나를 쉽게 따돌리며 앞서 나갔다. 나는 뒤처지는 것이 싫었다. 이런 기이한 일들에 대해 그보다 정신적 감수성이 낮고, 민감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것이 싫었다.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는 언제든 반쯤은 알지 못했으니까. _그는_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 희생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운명지어졌다는 그의 말의 의미를 나는 완전히 놓쳤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가식 부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는 절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커져만 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네 말이 옳아.” 그가 말을 바꾸기 전에 덧붙였다. “우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낫지.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_생각_하면 그것은 언젠가 말로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_말_로 꺼낸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거든.”

그 오후, 카누가 물기가 마르고 단단해지는 동안 우리는 낚시를 하고, 배의 누수를 점검하며, 나무를 주워 모으고, 불어나는 거대한 홍수를 지켜보느라 보냈다. 때때로 떠밀려 온 거대한 나무 덩어리들이 우리 해변 가까이까지 밀려왔고, 우리는 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 그것들을 낚아 올렸다. 강둑이 거대한 물결에 의해 쓸려 나가면서 섬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점점 작아져 갔다. 날씨는 오후 네 시쯤까지 환하게 맑았지만, 그제야 사흘 만에 처음으로 바람이 잦아드는 기미를 보였다. 구름들이 남서쪽 하늘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천천히 온 하늘을 뒤덮어 갔다.

바람이 약해지자 우리는 안도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굉음과 요란한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너무도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 다섯 시쯤 갑자기 불어오던 바람이 그치자, 찾아온 고요함은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숨 막혔다.

이제 강물 소리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강물은 깊은 웅성거림으로 공기를 채웠는데, 그 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더 곡조 같았지만 훨씬 단조로웠다. 바람은 높고 낮은 음을 오가며 거대한 원초적인 선율을 만들어냈지만, 강물의 노래는 많아야 세 가지 음에 불과했다.

그것은 둔탁한 페달음처럼 울렸고, 바람에는 없던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다. 당시 이미 예민해져 있던 내 귀에는, 그 소음이 마치 파멸의 음악을 연상시킬 만큼 완벽하게 들렸다.

태양광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 또한 기이했다. 밝은 햇살이 물러가자 풍경에서 낙관적인 요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 풍경은 이미 무언가 음흉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기에, 빛의 변화는 더욱 불쾌하고 눈에 띄었다.

나에게 점점 어두워지는 전망은 분명히 더 두려워졌다. 나는 해가 진 후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몇 번이나 계산했다. 그리고 모이는 구름이 작은 섬을 비추는 달빛을 크게 방해할지 고민했다.

바람의 기운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짧은 돌풍이 불어왔다. 그 사이로 강물은 더 검게 물들었고, 버드나무들은 서로 더 뻥뻥하게 모여 섰다.

버드나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움직임 보였다.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도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뿌리부터 위쪽으로 이상하게 몸살을 떨었다.

평범한 사물들이 이런 식으로 공포의 기운을 머금으면, 외형이 기이한 것들보다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한다. 우리 주변을 뻘뻘하게 에워싼 이 관목들은 어둠 속에서 기괴하고도 불균형한 모습을 띠었다. 마치 의도가 있고 살아있는 생물들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마치 목적을 가진 존재들인 양 느껴졌다.

그들의 평범함, 즉 일상성 속에 악의와 적대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땅의 힘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섬,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을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이처럼, 상상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 기이한 장소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그렇게 다가왔다.

오후 초반, 나는 꽤 오랫동안 잠을 잤다. 그래서 잠 설친 밤의 피로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듯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오히려 나를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쫓아오는 기운의 집요한 마법에 더 쉽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 감정에 저항했다. 내 마음이 터무니없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다. 분명히 명백한 생리적 원인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말이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기운은 점점 내게 강하게 작용했다.

나는 밤이 오기를 무서워했다. 마치 숲속에 길을 잃은 아이가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듯.

낮 동안 우리는 카누를 방수포로 꼼꼼하게 덮어두었다. 남은 한 개의 노는 스웨덴인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까 봐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오후 다섯 시가 되자 저녁 준비에 들어갔다. 그날은 내 차례였다. 나는 냄비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감자와 양파, 그리고 맛을 더할 베이컨 기름 조각을 넣었다. 냄비 바닥에는 예전의 스튜가 남긴 진한 찌꺼기가 있었다. 여기에 검은 빵을 부수어 넣으니, 그 결과물은 훌륭했다. 그다음으로는 설탕을 넣은 자두 스튜와 우유 가루로 만든 진한 차를 마셨다.

나무 더미가 눈앞에 쌓여 있었다. 바람이 없어서 일도 수월했다.

동료는 게으른 듯 나를 지켜보며 파이프를 닦고 쓸데없는 충고를 던졌다. 쉬는 자의 당연한 특권이었다. 그는 오후 내내 말이 없었다. 내가 자는 사이 카누의 틈을 메우고, 텐트 밧줄을 보강하며, 표류목을 주워 모으느라 바빴다.

우리는 더 이상 불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가 건넨 말은 오직 섬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점뿐이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섬이 거의 3분의 1 작아졌다고 주장했다.

냄비에서 거품이 막 일기 시작할 때였다. 그가 강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나는 달려갔다.

“와서 들어봐.” 그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그는 예전처럼 자주 하던 대로, 손바닥을 귀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지금 들리는 게 있나?” 그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보며 물었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물의 깊은 울림과 격류 위에서 피어오르는 쇠썩하는 소리만 들렸다. 버드나무들은 드물게도 움직이지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때 희미하게 내 귀에 닿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소리였다. 멀리서 울리는 거대한 공(Gong)의 웅웅거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소리는 어둠 너머, 맞은편 습지와 버드나무들 사이에서 우리 쪽으로 퍼져오는 것 같았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었지만, 확실히 종소리도 아니고 멀리서 들리는 증기선의 피리 소리도 아니었다.

나는 이 소리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늘 높은 곳에 매달린 거대한 공이, 부드럽고 음악적인 은은한 금속음을 내며 끊임없이 두드려지는 소리만큼 잘 어울리는 것이 없었다. 나는 경청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들었어.” 내 동료가 말했다. “오후에 내가 자고 있을 때, 그 소리는 섬을 한 바퀴 돌았지. 나는 그 정체를 추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제대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어. 때로는 머리 위에서 들리다가, 때로는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 한두 번은

아예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 네 번째 차원의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는 그 말, 알지?”

나는 너무 당황해서 그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익숙한 소리와 연결할 수는 없었다. 소리는 방향도 바뀌었다.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먼 곳으로 완전히 사라져 갔다. 그 소리에 불길한 기운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분명히 음악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나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래 깔때기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일 거야.” 나는 해답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하며 말했다. “아니면 폭풍이 지나간 뒤 관목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늘 전체에서 올라와,” 친구가 대답했다. “한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내 해명은 듣지도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버드나무들에서 올라오는 거야—”

“하지만 이제 바람이 잦아들었잖아.” 내가 반박했다. “버드나무들만으로는 소음을 일으키기 어렵지 않나?”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먼저 나는 이미 그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직관적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전에는 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바로 그—의 비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스튜가 타버릴까 봐 화롯가로 다시 뛰어갔다.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만약 가능했다면, 나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피할 결심이었다. 나는 그가 신들, 원시적 힘, 또는 다른 불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까 봐 두려웠다. 나는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기 전에 또 다른 밤을 맞아야 했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와서 냄비에 넣을 빵을 잘라라.” 나는 입맛을 돋우는 그 혼합물을 세계 저으며 그를 불렀다. 그 스튜 냄비 속은 우리 둘 모두에게 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그 생각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나무에서 식량 주머니를 내려받았다. 그는 주머니의 알 수 없는 깊은 곳 더듬거리며 손으로 뒤적였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발밑의 천 위에 쏟아냈다.

“서둘러!” 내가 외쳤다. “스튜가 끓고 있어.”

스웨덴인이 갑자기 터뜨린 웃음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웃음은 억지스러운 것이었다. 인위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하지만 명쾌한 기쁨은 전혀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다.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배를 잡고 소리쳤다.

“빵, 내가 말한 건.”

“없어졌다. 빵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가져갔어!”

나는 긴 손가락을 떨어뜨리고는 달려갔다. 자루에 들어 있던 모든 것이 바닥포 위에 놓여 있었지만, 빵은 없었다.

점점 커져만 가는 공포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몸을 떨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내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나도 비로소 이해했다. 우리 둘 다에게 닥친 심리적 압박의 얼룩이, 이 기괴한 웃음 폭발을 불러일으켰다. 억눌린 힘이 해방을 찾아 분출한 것이었다. 일시적인 안전밸브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우리 둘의 웃음은 아주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멈췄다.

“정말 죄인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했군!” 나는 여전히 일관성을 지키려 설명을 찾으려 외쳤다. “프레스부르크에서 빵 한 덩어리를 사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 수다스러운 여자가 내 모든 생각을 날려버렸지. 아마도 계산대 위에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아, 아니면—”

“오토밀도 아침보다 훨씬 줄었어요.” 스웨덴인이 말을 끊었다.

도대체 왜 그는 그걸 주목받게 만들려 했을까?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일 먹을 양은 충분해.” 내가 재빨리 저으며 말했다. “코모른이나 그란에서 더 많이 사 올 수도 있어. 하루 뒤면 우리는 여기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그런 기원을 하죠. 하나님께요.” 그는 물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먼저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는 어이없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는 주머니를 텐트 안으로 끌어들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나는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해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식사는 분명히 우울했다. 우리는 거의 말없이 식사를 했고,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리고 불을 밝게 유지했다. 그 후 설거지를 하고 밤을 준비했다.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러자 내가 하루 종일 느껴왔던 불안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것은 적극적인 두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기원의 모호함이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명확히 식별하고 직면할 수 있었다면 말이다. 내가 방금 전 징 소리와 비교했던 그 이상한 소리는 이제 거의 끊임 없이 들렸다. 그리고 밤의 고요함을 일련의 뚜렷한 소리가 아니라, 희미하고 지속적인 울림으로 채웠다. 어떤 때는 우리 뒤에 있었고, 어떤 때는 우리 앞에 있었다. 가끔은 왼쪽의 덩불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의 덩불에서 오는 것 같았다. 더 자주 그것은 우리 바로 위에서 날개 짓하는 소리처럼 맴돌았다. 그것은 실제로 한 번에 모든 곳에 있었다. 뒤쪽, 앞쪽, 우리 옆, 그리고 머리 위.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다. 이 소리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것

도 이 끊임없이 낮게 울리는 소리와 같지 않다. 그것은 버드나무와 습지가 있는 버려진 세상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우리는 비교적 고요한 가운데 담배를 피웠다. 긴장은 매분마다 더 깊어졌다. 이 상황의 가장 끔찍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

낮의 햇살 아래 내가 내던졌던 설명들이 이제 어리석고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괴롭혔다. 동행자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우리는 함께 밤을 보내야 했고, 같은 텐트 안에서 나란히 잠을 자야 했다. 나는 그의 마음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그 지지를 얻으려면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결말을 가능한 한 미뤘다. 그가 공허함 속으로 던졌던 몇 마디의 말들을 무시하거나, 웃어넘기려 애썼다.

게다가 몇몇 문장들은 나를 몹시 불안하게 했다.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던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확인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설득력은 더할 나위 없었다.

그는 묘한 문장들을 지어내곤, 아무렇지 않은 듯 내게 던졌다. 마치 자신의 핵심적인 생각은 스스로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던져진 말들은 그저 소화하기 힘든 찌꺼기들에 불과했다. 그는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비로소 털어냈다. 말하기는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마치 병을 토해내는 것과 같았다.

“우리 주위에 무질서와 해체, 파멸, 그리고 결국 우리의 파멸을 부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 그가 불꽃이 타오르는 사이에서 말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안전한 궤도를 벗어난 것 같아.”

그때 또 한 번, 종소리가 더 가까워서, 그전보다 훨씬 크게,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런 소리를 그라모폰이 기록해 낼 리는 없을 거야. 그 소리는 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진동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 몸속 깊이 스며들며 다가왔지. 마치 사차원적인 소리가 들리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 말에 굳이 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조금 더 난로 쪽으로 기울여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하늘 전체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달빛은 단 한 점도 스며들지 못했다.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강물과 개구리들만이 온전히 그들의 세계를 누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기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소리다. 인간을 초월한, 인간 밖에 있는 소리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삼키기 힘든 그 말을 뱉어낸 뒤, 잠시 고요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말해 주었기에,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언어라는 틀에 가두어 두니 마음속을 불안하게 오가며 어지럽
히던 생각들이 멈추었다. 그건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도나우강변의 그 캠프 장소, 그 고독을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텅
빈 이 행성 위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 내 생각은 끊임없이 도시들
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로 달렸다. 만약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면, 나
는 우리 일행이 지나쳤던 바이에른의 수많은 마을들의 ‘느낌’을 위해
내 영혼을 바쳤을 것이다. 평범하고 인간적인 일상들, 맥주를 마시는
농부들, 나무 아래 놓인 테이블들, 뜨거운 햇살, 그리고 붉은 지붕의
교회 뒤 바위 위에 우뚝 선 폐허가 된 성. 관광객들조차 반갑게 받아들
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느낀 공포는 평범한 유령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기묘했으며, 내가 알고 있거나 꿈꿔 본 어떤 것보다 더 근
본적인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어렴풋이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
져 온 공포의 본능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었다.

스웨덴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어딘가로 ‘迷失’해 버렸다. 위험은 컸
지만 우리는 그 위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역, 혹은 조건들 속으로 들
어선 것이다. 그곳은 알 수 없는 세계의 경계가 우리 바로 곁에 자리 잡
고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바깥 공간의 거주자들이 장악한 장소였다.
그곳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채로 지구를 엿볼 수 있는 작은 구멍, 즉 두
세계를 가리는 장막이 조금은 얇아진 지점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면, 결국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것을 빼앗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 의미에서, 그가 말했듯, 우리는 우리의 모험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 경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각자의 민감도와 저항력의 크기에 따라 달랐다.

나는 그것을 격렬하게 뒤흔든 자연 요소들의 의인화로 대충 해석했다. 그 요소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공포를 품게 했고, 그들의 번식지에 대한 우리의 무모한 침입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했다.

반면 내 친구는 그것을 처음에는 진부한 형태로 받아들였다. 고대 성역, 혹은 아직 옛 신들이 군림하던 곳, 옛 승배자들의 정서적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에서의 침입으로 본 것이다. 그의 조상적인 본능은 그 오래된 이교도의 마법에 저항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곳은 인간의 더러움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거친 바람이 인간적인 영향을 씻어내고 장소를 깨끗이 지켰다. 이곳은 영적인 존재들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고, 공격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전이나 이후로, 나는 결코 이렇게 공격받은 적이 없었다. ‘저 너머’의 설명 불가능한 암시들, 또 다른 삶의 체계, 인간과 평행하지 않은 또 다른 혁명에 대한 암시들이 나를 에워쌌다.

결국 우리의 정신은 끔찍한 마력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그들의 세계로 끌려들어갈 운명이었다.

작은 것들이 이 장소의 놀라운 영향력을 증언했다. 이제 불빛 주변이 고요해지자, 그 작은 징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씩 포착되기 시작했다.

공기 자체도 모든 단서를 왜곡시키는 돋보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강물 위에서 구르는 수달, 손짓하며 재촉하는 뱃사공, 그리고 흔들리는 버드나무들. 모두 자연스러운 본모습을 잃고, 그 이면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그 변모된 모습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 닿았던 전체적인 경험은 인류에게 완전히 미지의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_이 세상의 것이 아닌_ 것이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그 목적성이야말로 인간의 용기를 단번에 영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스웨덴인이 갑자기 말했다. 마치 내 생각을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상상이 제법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패들, 카누, 그리고 줄어드는 식량—”

“이미 다 설명했지?” 내가 날카롭게 끊었다.

“하셨죠,”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정말 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이 ‘희생을 제공하려는 평범한 결의’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여러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생각을 좀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단지 그가 급소를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사로잡히거나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러나온 영혼의 비명일 뿐임을 깨달았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이성적 냉정함을 요구했다. 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내 안에 두 사람이 공존하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는 나, 다른 하나는 그런 어리석은 설명들을 조롱하면서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나.

그사이, 칠혹 같은 밤이 깊어갔다. 불은 꺼져가고 장작 더미는 작아졌다. 우리는 둘 다 불을 보충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어둠은 우리의 얼굴에 바짝 다가왔다. 불빛이 비치는 원의 바깥, 몇 발자국만 벗어나면 먹물처럼 새까맣게 질려 있었다. 가끔 훑날리는 바람이 버드나무들을 떨게 했지만,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 소리 외에는 깊은 침묵이 지배했다. 오직 강물이 거품 섞인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과, 머리 위 공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우리 둘 다 함성을 지르던 바람의 무리를 그리워했던 것 같다.

드디어, 바람이 다시 일기 시작할 것처럼 긴 기운이 한 번 더 이어지던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평범한 말로라도

불안을 털어내지 않으면, 둘 모두에게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히스테리성 과잉 행동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말 터였다.

나는 장작더미를 발로 차서 불을 크게 일으켰다. 그러고는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제 더 숨길 수 없군요.” 내가 말했다. “이곳이 싫습니다. 어둠도, 소리도,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끔찍한 느낌도 모두 싫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완전히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쪽 강둑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저는 과감히 강을 건너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스웨덴인의 얼굴은 햇빛과 바람에 그을린 깊은 갈색 피부 아래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운 침착함으로 그의 거대한 흥분을 배신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두 사람 중 그가 더 강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는 더 냉정했다.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육체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중대한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코끼리 떼를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힘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파리를 짓밟는 것처럼 쉽게 우리를 죽일 수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무의미함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내 표정에는 열두 가지 질문이 서려 있었지만, 입에서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증상을 정확히 묘사하는 병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 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우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야. 미국인들이 말하듯, 우리가 있는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지.”

그가 이어 말했다.

“그들은 마치 가스 누출을 찾는 사람처럼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어. 패들, 카누, 그리고 식량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나는 그들이 우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볼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그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일 거야.”

“죽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의 제안이 던지는 공포에 얼어붙어 말더듬이 되었다.

“훨씬 더 나빠요.” 그가 말했다. “죽음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소멸이거나 감각의 한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격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습니다. _당신_이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변형, 완전한 변화, 자신을 대체함으로써 겪는 끔찍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쁘고, 심지어 소

멸조차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도 그들의 영역과 우리 영역이 맞닿는 곳에 야영했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장막이 얇아진 곳이죠.”

그가 내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내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존재를 그들의 근처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누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물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버드나무들은 떨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빼고. 그 답은 내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추며 답했다. 불꽃 너머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였다. 그의 얼굴에 묘한 변화가 일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동안,” 그가 말했다. “나는 우리 세계와 한쪽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영역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의식해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위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끔찍한 존재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일들, 즉 국가의 흥망성쇠, 제국의 운명, 군대와 대륙의 운명 따위는 저울추에 달린 먼지처럼 여길 만큼 거대한 목적을 향해 급히 나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거대한 목적이라 함은, 영혼의 단순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를 막으려 입을 열었다. 마치 광인과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장 자신의 말을 쏟아냈다. 멈출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터져 나와야만 하는 그 말들.

“너는 이것이 요소들의 정령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도 처음에는 옛 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해. 그것들은 아니야. 그 둘 다 아니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만약 저들이라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숭배나 제사를 통해 의존하는 존재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일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 존재들은 인간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단지 그들의 공간이 우연히 우리 공간과 맞닿아 있을 뿐이지.”

그의 말이 낯선 섬의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들려올 때, 그 단순한 상상은 마치 현실처럼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 대체 무엇을 제안한다는 거지?” 내가 다시 물었다.

“희생양, 즉 희생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는 동안 시선을 돌려 우리를 놓아주길 기다리는 거죠. 마치 늑대들이 썰매를 다시 쫓아오기 전에 개들을 잡아먹으며 시간을 버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다른 희생자를 구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어린 번뜩임은 끔찍할 정도였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연히 버드나무들 때문이야. 버드나무들이 다른 것들을 숨기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를 향해 더듬거리고 있어.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드러내면, 우리는 끝장난 거야. 완전히, 완전히.”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평온했고, 너무도 단호했으며, 너무도 진심이었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의심은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그 어느 인간보다도 정상적이었다.

“우리가 밤을 견뎌낸다면,” 그가 덧붙였다, “아마도 낮에 눈치채지 못하고, 아니, 정확히 말해 발견되지 않은 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희생 제물이—”

그 종소리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내 말과 동시에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입을 다물게 만든 것은, 내 친구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조용히.”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그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절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단서가 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들을 무시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테니까.”

“생각 속에서도?” 그는 유례없이 동요한 듯했다.

특히 생각이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들의 세계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퍼져 나갑니다. 가능한 한,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나는 어둠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다시 피웠다. 그 여름 밤의 끔찍한 검은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가 그리웠다.

“어젯밤 내내 깨어 있었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새벽이 조금 지난 뒤, 잠을 설쳤어요.” 나는 그의 지시를 따르려 애썼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물론…”

“알아요. 하지만 바람 소리로 모든 소리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당신도 그 소리를 들으셨군요?”

“수없이 많은 작은 발소리들이 겹쳐 들렸어요.” 그가 말했다. 잠시 주저하더니, “그리고 다른 소리도—”

“장막 위쪽,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언가를 뜻하시나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마치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시작과 같았나요?”
내가 물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게는 대기의 무게가 변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우리가 으스스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심하며, 위를 가리켰다. 종처럼 울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웅웅거렸고, 바람처럼 오르내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_그들_의 소리야.” 그가 진지한 어조로 속삭였다. “그들의 세계가 내는 소리, 그들이 머무는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웅웅거림이지. 이곳의 경계는 너무도 얇아서, 어쩐지 그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거야.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소리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소리는 버드나무들에 있네. 바로 그 버드나무들 자체가 웅웅거리고 있는 거지. 이곳에서 버드나무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힘들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과 개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그것과 일치했다. 나는 그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깨달았다. 다만 그보다 분석력이 떨어졌을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내 환상에 대해 말하려 했다. 상승하는 형상들과 움직이는 덩불에 대한 나의 환상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불빛 너머로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매우 진지한 속삭임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상황의 통제력 같은 것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수년간 그를 상상력이 부족하고 둔감한 사람으로 여겨왔다.

“자, 들어라.”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평소의 습관을 그대로 따르고, 잠자리에 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해야 해. 이건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야.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수록, 도망칠 기회는 멀어지지. 무엇보다도, 절대 _생각하지 마_. 네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지니까!”

“알겠소.” 나는 숨이 턱 막혀 제대로 된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간신히 대답했다. “그렇게 해보겠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땅속의 오목한 구덩이들, 그리고 모래 깔때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시요?”

“아니!” 그는 흥분에 휩싸여 속삭임도 잊은 채 외쳤다. “그 생각을 말로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아. 정말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만약 네가 아직 짐작하지 못했다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억지로 추측하려 하지 마. _그들_이 이미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심어놓았어. 네 머릿속에도 그들이 그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라.”

그는 말을 끝내기 전에 다시 목소리를 속삭임 수준으로 낮췄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설명을 강요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공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파이프 담배를 재빠르게 피웠다.

그때, 별것 아닌 일이 일어났다. 신경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일 때 흔히 그렇듯, 사소한 사건이 잠시 동안 나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선사한 것이다.

우연히 발을 내려다보았다. 카누에 쓰던 샌드슈였다. 발가락 부분의 구멍이 갑자기 런던의 신발 가게를 떠올리게 했다. 점원이 내 발에 신발을 맞추느라 애썼던 일, 그리고 그 지루하지만 실용적인 구매 과정의 다른 디테일들이 연이어 기억났다.

그 순간, 익숙하던 현대적이며 회의적인 세계의 건전한 시각이 따라왔다. 나는 로스트 비프와 에일, 자동차, 경찰관, 취주악단, 그리고 평범함이나 유용성을 증명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였다.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정상적인 의식에게는 불가능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긴장감에 대한 갑작스럽고 격렬한 반동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순간은 내 마음의 마법을 잠시 풀어놓았다. 나는 약 일 분 동안 자유롭고, 두려움 따위 전혀 없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미친 이교도야!”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너는 상상력이 풍부한 바보야! 미신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야! 너—”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다시금 예전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내 목소리의 소리를, 신성모독인 것처럼 억누르려 애썼다.

물론 스웨덴인도 그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위에서 들려온 기이한 비명, 그리고 공기가 갑자기 가라앉는 듯한 느낌. 무언가가 더 가까워진 듯한 그 감각을 말이다.

그는 태닝된 피부 아래로 재색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불 앞에 막대기처럼 뻗뻗하게 꼳꼳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응시했다.

“그 뒤로는,”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듯, 그리고 난감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지. 지금 당장 장소를 비우고 강을 따라 내려가야 해.”

그는 완전히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본 바로는, 그의 말들은 철저한 공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공포를 억누르려 해왔지만, 결국 그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요?” 나는 경련처럼 떨며 외쳤다. 히스테리성 발작 이후라 몸이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보다 우리의 처지를 더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이건 순전한 광기예요. 강은 범람했고, 우리는 노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들의 영토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오십 마일 동안은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뿐이에요!”

그는 반쯤 쓰러진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연이 즐겨 일으키는 만화경 같은 변화처럼,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우리 편 세력의 주

도권은 내 손으로 넘어갔다. 드디어 그의 정신이 약해지기 시작할 지점까지 추락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와 얼굴에는 진정한 공포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불을 돌아 그가 있는 쪽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두 손을 내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 그의 놀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번 더 횃불을 밝힌 뒤,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새벽이 밝으면 코모른으로 전속력으로 향할 테니까. 자, 정신을 차려. 네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그 조언을 기억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동의하고 따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어둠 속으로 나가 더 많은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일은 일종의 안도감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붙어, 거의 몸을 맞댄 채로, 덩불 사이와 강둑을 따라 더듬거렸다. 머리 위에서 울리던 웅웅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추운 밤, 떨리는 일이었다!

우리는 다소 뻘뻘한 버드나무들 무리 한가운데에서 애를 쓰고 있었다. 예전 홍수 때 밀려온 유목(流水)이 가지 사이에 높이 걸려 있던 곳이었다. 그때 내 몸이 누군가에게 꼭 잡혔다. 그 힘에 나는 모래 위에 반쯤 주저앉을 뻔했다.

스웨덴인이었다. 그가 내게로 쓰러져 오며, 균형을 잡으려 나를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숨이 짧고 가쁘게 들락날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봐! 내 영혼이여!” 그가 속삭였다. 내 경험상 처음 듣는, 공포의 눈물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약 오십 피트 떨어진 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 보니, 내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곳, 희미한 빛 앞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 눈앞에 드리운 베일 너머로 보였다. 극장 무대 뒤편에 걸리는 얇은 가림막처럼 흐릿하게. 그것은 인간도 동물도 아니었다. 나는 이상한 인상을 받았다. 여러 마리의 동물이 뭉쳐 있는 듯한 크기였다. 말 두세 마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스웨덴인도 비슷하게 느꼈다. 다만 표현은 달랐다. 그는 그것이 버드나무 덩어리처럼 생겼고 크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윗부분은 둥글게 말려 있었다. 표면을 따라 온몸이 움직였다. “연기가 자기 몸을 감싸듯 꼬여 있었다”고 그는 나중에 말했다.

“나도 그걸 봤어. 덩불 사이로 내려앉는 걸.” 그가 울부짖었다. “봐! 하나님을 두고 맹세코! 저쪽을 향해 오고 있어! 오, 오!” 그가 휘파람 같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저들이 우리를 찾아냈어.”

나는 공포에 질려 한 번 급하게 쳐다보았다. 그 그림자 같은 형체가 수풀 사이로 우리 쪽으로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간신히 보였다. 그러자 나는 뒤로 균형을 잃고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물론 나뭇가

지는 내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다. 스웨덴인이 내 위에 겹쳐 앉은 채, 우리는 모래 위에 허우적거리며 뒹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거의 알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만 있었다. 그 공포는 신경을 살에서 빼내어 여기저기 비틀고, 다시 떨어지는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눈을 짝 감고 있었다. 목구멍이 막혀 숨이 막혔다. 나의 의식이 확장되어 공간 너머로 뻗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자, 곧바로 그것을 완전히 잃고 죽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바뀌었다.

급격한 통증이 내 몸을 지나갔다. 스웨덴인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손아귀가 너무도 끔찍하게 나를 아프게 했다. 그가 넘어질 때 나를 잡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고통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 고통은 내가 그들을 잊게 했고, 그들이 나를 찾아내려던 그 순간, 다른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 고통은 그들이 나를 발견하려던 찰나에 내 마음을 그들로부터 숨겨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던 끔찍한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동시에 의식을 잃었다고도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를 구원한 것이었다고.

그 후의 일은 언제였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없다. 미끄러운 버드나무 가지들 사이에서 기어올라 나왔을 때, 내 동료가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려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위해 비틀어준 팔을 문지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었다.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았죠. 그 존재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팔이 둘로 부러질 뻔했어.”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은 이것뿐이었다. 온몸이 저려왔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한 거야!”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어딘가에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췄어. 당분간은 사라진 거지!”

발작적인 웃음이 나를 다시 사로잡았다. 이번에는 내 친구에게도 그 웃음이 퍼져 나갔다. 몸을 떨게 하는 위대한 치유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뒤따라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불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무를 더 쌓아 놓자 불꽃이 순식간에 타올랐다. 그러자 우리는 텐트가 넘어져 지면에 엉킨 채로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넘어졌고, 모래에 발이 걸리기도 했다.

“그것은 모래 깔때기야.” 텐트를 다시 치고, 모닥불 빛이 우리 주변 몇 야드 땅을 비추자 스웨덴인이 외쳤다. “그 크기를 봐!”

텐트 주변과 우리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목격했던 모닥불 자리 주변에는 모래 위에 깊은 갈때기 모양의 오목한 자국들이 패여 있었다. 우리는 이미 섬 위에서도 비슷한 자국들을 발견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훨씬 더 크고 깊었다. 형태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내 발 전체와 종아리까지 쑥 들어갈 만큼 넓었다.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잠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침대로 향했다. 먼저 모래를 불 위에 던져 불을 껐고, 식량 주머니와 노를 텐트 안으로 가져왔다.

카누도 텐트 끝부분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발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카누가 흔들리고, 그 소리에 우리는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는 다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들었다. 급격한 출발에 대비한 준비였다.

5

나는 밤새 내내 눈을 뜨고 감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신경과 몸이 지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잠시 후, 잊음의 따뜻한 담요처럼 환영할 만한 잠이 나를 덮쳤다. 동료가 잠들었다는 사실이 그 잠을 더 빠르게 불러왔다.

처음에 그는 안절부절못하며 자꾸 일어났다. “이거 들렸어?” “저거 들렸어?” 하며 나에게 물었다. 코르크 매트리스 위에서 뒤척이며, 천막

이 움직이고 강물이 섬의 끝부분을 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항상 모든 것이 평온했다. 결국 그는 진정되어 움직임을 멈췄다.

그때서야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코를 고는 소리를 들었다. 일생에서 단 한 번, 그리고 유일하게 코골이가 달콤하고 안정감을 주는 소리로 들린 순간이었다.

그것이 내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았던 생각이었다.

숨을 쉬기 어려워져 잠에서 깨어났다. 이불이 내 얼굴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이불 말고도 무언가가 내 위에 짓누르고 있었다. 첫 생각은 잠든 채로 동료가 자신의 매트리스에서 굴러내려 내 매트리스에 올라왔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부르며 몸을 일으켰고, 그 순간 텐트가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발소리가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밖에서 들렸다. 밤을 공포로 가득 채우는 소리였다.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또한 텐트 날개가 내려져 있는 것도 눈치챘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기어 나와 날개를 다시 단단히 고정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스웨덴인이 여기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끔찍한 불안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온통 나를 감싸고 있던 빙음의 폭포수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늘의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그 소리는, 바로 그 익숙한 웅웅거림이었지만, 이제는 미쳐 날뛰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벌 떼가 공기 중에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듯했다. 그 소리는 공기 자체를 진하게 만들어, 내 폐가 숨을 쉬기 벅찰 정도로 느껴졌다.

하지만 내 친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망설일 수 없었다.

새벽이 막 밝으려 할 무렵, 희미한 백색의 빛이 얇은 구름 틈으로 새어 나온 맑은 수평선 너머로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다. 바람 한 점 일지 않았다. 나는 간신히 너머의 수풀과 강, 그리고 창백한 모래 패치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흥분에 휩싸인 나는 섬 안을 미친 듯이 오가며 그를 불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마디를 목청껏 외쳤다. 하지만 버드나무들이 내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그 소리를 가려, 내 목소리는 내 주변 몇 발짝 밖으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나는 수풀 속으로 돌진했다. 머리를 먼저 내밀고 넘어지고, 뿌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며, 방해가 되는 가지들을 찢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동안 얼굴을 긁어대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나는 섬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물과 하늘 사이로 어두운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스웨덴인이었다. 그는 이미 한 발을 강물 속으로 내딛고 있었다. 단 한 순간만 더, 그는 곧 물속으로 몸을 던졌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팔을 그의 허리에 감고, 온 힘을 다해 강가 쪽으로 그를 끌었다.

물론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입에서는 그 저주받은 웅웅거림과 같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분노에 찬 그는 기이한 말들을 내뱉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물과 바람의 길을 간다”는 식의 말들. 그 외에도 내가 나중에 기억해 내려고 애썼으나 실패한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나는 공포와 경악으로 오싹해졌다.

결국 나는 그를 텐트 안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끌어넣었다. 숨이 막히고 저주를 내뱉으며 그는 매트리스 위에 쓰러졌다. 발작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잊고 평정심을 되찾은 순간, 밖에서 들리던 웅웅거리는 소리와 툭툭 치는 소리가 똑같이 갑작스럽게 멈췄다. 이 모든 일이 겹쳐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이것이 전체 사건 중 가장 기이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막 눈을 뜨고 지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빛이 그의 얼굴에 옅은 광을 던졌다. 그는 마치 놀란 아이처럼 말했다.

“제 인생을요, 아저씨. 제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자리를 대신해 다른 희생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는 다시 이불 위로 몸을 던져 내 눈앞에서 곧장 잠들었다. 그는 그저 쓰러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음을 자청하려 했던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세 시간 후, 햇살이 그를 깨울 때쯤이었다. 나는 그 세 시간 내내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자신이 하려던 일을 단 한 순간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위험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잠에서 깨어났다. 이미 해가 높게 뜬, 바람 한 점 없는 뜨거운 하늘 아래서였다. 그는 곧장 일어나 아침 식사용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목욕하는 그의 뒤를 조바심 나게 따라갔지만,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잠그며, 물이 유난히 차갑다고 말하는 정도였다.

“강물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네. 나는 그게 다행이야.”

“저음의 웅웅거림도 멈췄소.”

그가 나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평소와 다른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살 시도한 일 말고는.

“모든 것이 멈췄어요,” 그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기절하기 직전에 던졌던 그 말에 대한 언급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희생자가 또 발견됐대?” 내가 말했다. 억지 웃음을 섞어 가며.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마치—아마도—제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그는 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주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햇살이 모래 위에 뜨거운 자국을 드리우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다. 버드나무들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일어섰다.

“가자.” 그가 말했다.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가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그를 따라갔다. 그는 강둑을 따라가며 나뭇가지로 모래톱만 한 만(灣)과 동굴, 그리고 작은 후미진 물가들을 두드려 보았다. 나는 그의 발자취를 바짝 따라갔다.

“아!” 그가 곧이어 외쳤다. “아!”

그의 목소리 톤은 묘하게도 지난 스물네 시간 동안의 공포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나는 서둘러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지팡이로 강물과 모래 사이에 반쯤 잠긴 커다란 검은 물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뒤틀린 버드나무 뿌리에 걸려 있는 듯했다. 그래서 강물은 그것을 쓸어가지 못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자리는 물속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보시오,” 그가 고요하게 말했다. “우리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희생자들.”

그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니, 그의 지팡이가 한 남자의 시신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시신을 뒤집었다. 그것은 한 농부의 시체였고, 얼굴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그 남자는 분명 몇 시간 전에 익사한 듯했다. 그의 시체는 아마 새벽 무렵, 우리 섬으로 밀려온 것으로 보였다. 바로 그 발작이 지나가던 순간이었다.

“우리, 제대로 장사를 지내야 해요.”

“그렇겠지.”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몸을 떨었다. 그 익사한 자의 모습이 나를 오한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인이 나를 날카롭게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강둑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여유롭게 그 뒤를 따랐다.

흐르는 물살이 시신의 옷을 많이 찢어냈다는 것을 눈치챘다. 목과 가슴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강둑 중간쯤에서 동료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경고를 하듯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내 발이 미끄러졌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나는 제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부딪혔고,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약하듯 앞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함께 단단한 모래 위로 굴러떨졌고, 발이 물속으로 침범 빠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시체와 강하게 충돌했다.

스웨덴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나는 총을 맞은 듯 뒤로 펄쩍 물러났다.

우리가 그 시체에 닿는 순간, 그 표면에서 커다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개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겹쳐 나는 듯했다. 그 소리는 우리 주변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것들의 거대한 요동처럼 격렬하게 일었다가, 하늘 위로 사라져 갔다.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다가, 결국 멀리서 멈추고 말았다. 마치 우리가, 일에 열중해 있던 살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체들을 방해한 것 같았다.

내 동료가 나를 꼭 쥐었다. 나도 모르게 그를 움켜쥐고 있었다. 뜻밖의 충격에 둘 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목격했다. 조류의 움직임이 시신을 돌려버린 것이다. 버드나무 뿌리가 시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힘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이 지났다. 시신이 완전히 뒤집혔다. 죽은 얼굴이 하늘을 향했다. 하늘을 응시하는 시체였다. 시신은 본류의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신은 쓸려나갈 것이다.

스웨덴인이 무언가를 구하려 애쓰며 소리쳤다. ‘마땅한 장례’에 관한 것이었으나, 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내가 본 것은 그가 본 것과 같았다.

시체가 물살을 따라 돌던 순간, 시체는 완전히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얼굴과 드러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피부와 살결에는 작은 오목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다. 그 자국들은 정교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 섬 곳곳에서 발견했던 모래 깔때기 모양과 정확히 닮아 있었다.

“그들의 표징!” 내 동료가 숨을 죽인 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끔찍한 표징!”

내가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강을 바라보았을 때, 흐름은 이미 일을 마친 뒤였다. 시체는 강 한복판으로 쓸려 나갔고, 우리는 이미 그에게 닿을 수 없게 되었다. 시체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떠밀려 갔다. 물결 위를 수달처럼 뒤집혔다.